

‘제7회 국제평화영화제’

16~19일 광주·나주·서울 개최
개막작 켈 로치 ‘나의 올드 오크’
12개국 장·단편·다큐 30여편

계엄 사태와 우·러, 이·팔 전쟁 등과 맞물려 국제 사회에서 ‘평화’ 메시지가 부각되고 있다. 한강 작가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노벨상 시상식 연회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며 “문학이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며 평화와 공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는 때보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메시지가 중요한 시점에 전쟁과 불평등에 반대하는 국제 평화영화제가 열린다.

국제평화영화제(조직위원장 유인학)가 ‘제7회 국제평화영화제’를 16~19일 광주, 나주, 서울 등지에서 펼친다.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모티브로 한 12개국 장·단편 다큐를 비롯해 애니메이션 등 총 30여 편의 상영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은 16일(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제체험관에서 펼쳐진다. 올해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 수상자인 임권택 감독과 시네마테크(특별상)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하며 임 감독의 영화 세계를 조망하는 영상을 상영한다.

개막작은 17일(오후 6시 30분) 나주 CGV에서 선보이는 켈 로치 작 ‘나의 올드 오크’다. 영국 북동부 폐광촌에서 오래된 펍 ‘올드 오크’를 운영하는 T와 사진작가가 꿈인 소녀 아리가 우정을 쌓아가



‘제7회 국제평화영화제’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광주·나주·서울 등지에서 열린다. 나주 CGV에서 상영하는 개막작 ‘나의 올드 오크’(왼쪽), 폐막작 ‘마리우폴에서의 20일’ 스틸컷.



영화로 ‘평화’와 ‘공생’의 메시지 전하다

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날 자리에서는 전국 대학생 독립영화제에 공모한 200여 작품 중 대상 및 우수상을 받은 작품도 선보인다.

이어 고래의 세계를 조망하고 지구 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다큐 ‘고래와 나’, 2024 힌츠페스티벌을 수상한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 가자의 응급구조대’, ‘지금 가자에선’, ‘인사이드 이란: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이 스크린에 걸린다.

같은 자리에서 18일에는 ‘목소리들’, ‘이타카로 가는 길’을 시작으로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장편 수

상작 ‘로봇 드림’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당에서는 일본의 정상급 오페라 가수 전월선의 드라마틱한 가곡사를 그린 ‘무지개 다리의 노래 라스트린 월선’이 특별 상영된다.

19일엔 광주 롯데시네마(총장점)에서 ‘청년 사업가 김대중-애니툰’이 라인업한다. 이 작품은 파란곡절을 거쳤던 정치인으로서 김대중이 아니라 목포에서 해운회사를 운영하며 탄탄대로를 걸던 사업가로서 김대중의 모습을 조명한다.

폐막작으로 라인업한 작품은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이다.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수상한 이 작품은 러시아 집

공으로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진실을 다뤘다.

한편 이번 행사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기념,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위원장 문화상) 등과 대한민국 헌정회 등이 공동 주최한다.

유인학 조직위원장은 “전쟁과 갈등, 양극화와 환경 위기 속에서도 희망과 연대를 모색하는 이번 작품들을 통해 전 인류에게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며 “영화의 힘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다큐 ‘고래와 나’



미구엘 슈발리에 작 ‘Flower Power’

디지털 예술로 만나는 미래 자연

미구엘 슈발리에·이이남
17일부터 전남도립미술관

‘미래가 된 산수’.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이 동서양의 뉴미디어아트 특별전을 연다.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미래 자연을 디지털 예술로 구현했다.

프랑스와 한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미구엘 슈발리에와 이이남이 뉴미디어 기술을 매개로 7 작품을 선보인다. 미구엘 슈발리에에 그동안 유럽 인상주의와 AI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화려한 가상의 풍경을 표현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세 개의 가상정원을 펼쳐낸다. ‘메타-네이처 AI’, ‘엔스트라-내추

럴’, ‘플라워 파워’는 가상식물원을 연출한 작품이다. ‘실제 자연과 기술이 구현한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시작되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펼쳐질지 주목된다.

동양의 전통 산수화를 디지털 미술로 재구성한 이이남은 ‘폭발하는 산수’, ‘진동하는 산수’, ‘미래가 된 산수’를 선보인다. 사라져 가는 산수의 형상에서 여백을 발견하고 무한한 산수 속에서 미래의 산수를 즐길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이지호 관장은 “이번 전시는 서양과 동양, 전통과 현대, 미래의 경계를 오가는 두 작가의 개성적인 디지털 예술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며 “두 작가의 콜라보가 주는 융합 예술의 다채로움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해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호두까기 인형’ 명작 발레

20~21일 광주예술의전당

1997년 초연 이래 27년 간 누적 관객 약 7만 명을 돌파한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장식하는 대표 레퍼토리 중 하나다. 발레단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에 걸쳐 5분 만에 전석 매진될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이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을 오는 20일(오후 7시 30분), 21일(오후 3시,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독일의 극작가 E.T.A 호프만의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원작으로 만든 전2막 발레이며 차이코프스키 음악으로 채워진다.

1막은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 속에서 호두까기 왕자와 생쥐왕의 전투에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둘은 눈의 나라에서 눈의 여왕, 눈송이들의 환대를 받으며 과거의 나라로 향한다.

이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아라비안 커피, 스페니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공연 장면.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쉬 초콜릿, 중국의 차, 프랑스의 밀리퐁 등과 마더진저, 봉봉의 춤을 볼 수 있다. 대표곡인 ‘우아한 꽃의 왈츠’나 사랑요정과 왕자의 파드되(2인무)를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지휘봉은 현 양주시향 박승유 지휘자가 잡으며 카메라타전남이 오케스트라 선율을 곁들인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전통적인 ‘호두까기 인형’ 클래식 버전에 재안무 작업을 거쳐 관객들에게 가

까이 다가가려 준비했다”며 “1막에서는 눈의 나라 요정들의 춤, 쥐와 병정들의 전투 장면 등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합박는, 씨락눈이 휘몰아치는 대목을 24명 발레리나가 장엄하게 표현하는 장면, 마더진저, 봉봉의 등장은 많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내 동아시아 문화도시 협력 워크숍...17~18일 DJ센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이하 지원포럼)이 국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문화도시 협력 워크숍을 연다.

오는 17~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중국 취안저우시, 일본 요코하마시와 함께 1호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의 교류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도시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향후 한중일 동

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지자체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취지다.

류재한 회장은 “지속 가능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서는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에만 국한되어 추진되기보다 국내 동아시아 문화도시들 간 교류와 협력 역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1년째를 맞이하는 국내 동아시아 문화도시들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동아시아 문화도시시는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합의된 3국 간 교류사업이다. 이후 3국 문화 관련 부처는 매년 각국의 도시 중 한 곳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했으며 3개 도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펼쳐왔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광주시(2014), 청주시(2015), 제주특별자치도(2016), 대구광역시(2017), 부산광역시(2018), 인천광역시(2019), 순천시(2021), 경주시(2022), 전주시(2023), 김해시(2024), 안성시(2025)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세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